

相卽論의 思想史的 考察

本覺(陳永裕)
佛敎學科 敎授

본 논문은 三論의 吉藏과 華嚴의 法藏이 그들의 불교 사상을 구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은 '相卽論'을 중심으로 하여 두 사상을 비교 검토한 것이다. 三論의 상즉론의 근본은 般若思想에 기인한 二諦中道에 있고, 華嚴은 圓敎를 一實諦라 하여 相卽相入에 의한 원융무애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리적으로 般若에서 三論, 그리고 華嚴으로 이어지며, 인물은 吉藏과 法藏이 대비된다.

그러나 여기에 法藏시대의 義湘과 法藏의 관계만으로도 韓半島의 불교학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고, 義湘에게는 또한 元曉라는 거목이 옆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法藏이 활약한 600년대에는 한반도의 新羅 불교가 융성기에 있었고 元曉의 和諍一心 사상은 吉藏에 이어서 法藏의 敎學 형성에 커다란 가교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法藏이 華嚴의 法界緣起를 표방하는 圓融無碍의 敎學을 확립하는 데에는 吉藏의 二諦相卽과 元曉의 和諍一心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정리하여 보았다.

相卽論의 思想史的 考察

本覺(陳永裕)
佛教學科 教授

- | | |
|-----------------|-------------|
| I. 緒論 | 1. 二諦中道の 相卽 |
| II. 相卽의 論理的 構造 | 2. 和諍一心의 相卽 |
| 1. 相卽의 對立 개념 | 3. 圓融無碍의 相卽 |
| 2. 相卽의 融通 개념 | IV. 結論 |
| III. 相卽의 思想的 展開 | |

I. 緒言

본 논문의 연구 과제는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相卽論을 주제로 잡았다. ‘相卽’이란, 곧 ‘卽’의 論理로서 經典에 卽의 번역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구마라습 번역의 『摩訶般若波羅蜜經』 권 제1의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지적한다.¹⁾ 따라서 이 색과 종이 다르지 아니하고(不異), 색과 종이 여의지 아니함(不離)²⁾이 卽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般若思想의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며 『中論』의 二諦中道에서 보이는 卽의 개념이다. 더욱이 화엄 교학에서는 ‘相卽相入’의 論理로 크게 발달하였으며, 화엄의 원융무애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1) 坂本幸男 「卽の意義及び構造について」(1956年, 『印仏研』第4卷2号)에서 西晉의 竺法護 등의 번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卽의 번역어에 대응되는 산스크리트 원어는 yad...tad, 혹은 eva라고 지적하고 있다.

2) 玄奘譯 『大般若經』 卷 第4에, 「色不離空 空不離色 色卽是空 空卽是色」(大正藏5, 17 下)으로 번역됨.

또한 ‘思想史’라 이름한 것은, ‘卽’의 論理가 般若에서 華嚴으로 전개된 것과 같이 그 이면에는 논리를 전개한 人物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思想의 전개 과정에 필연적으로 관계를 갖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의 전개를 고찰하는 의미에서 思想史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인물의 중심에 三論을 대표하는 吉藏(549~623)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華嚴을 대표하는 法藏(643~712)이 있다. 法藏이 화엄 교학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義湘(625~702)이 있으며 義湘은 또한 元曉(617~686)와 더불어 많은 부분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장은 의상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언제나 곁으로 원효의 사상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先學에 의해서 元曉 사상이 法藏 교학에 끼친 영향은 많은 부분에서 연구되었다.³⁾

이들은 서로 생존해서 만나지는 못했어도 사상적인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연대적인 선후 관계 속에 길장·원효·의상·법장이 거의 600년대의 중국과 한반도의 불교계 대표자들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고,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는 空思想을 기반으로 하여 兩邊을 여윈 中道 내지는 無碍, 不二를 최고의 가치로서 사상의 핵심에 두었다고 하는 동일한 맥락의 불교 사상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⁴⁾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相卽’이라는 주제로써 이들 사상의 동일성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吉藏은 般若 中論을 중심으로 相卽理論을 전개하였고, 원효는 그의 유명한 普法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和諍一心 사상이 곧 相卽論과 상통한다고 보며, 法藏은 華嚴思想을 相卽相入의 理論으로서 원용무애성을 극대화시킨 주인공이다.⁵⁾ 이들에 의해서 三論宗과 원

3) 예를 들면, 李箕永은 1967년, 『元曉思想』, p.35에서 法藏은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에 의해서 『起信論義記』를 지었고 圭峯 역시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학자인 橫超慧日은 원효의 『二障義』를 정리하고 연구편에서 法藏의 『華嚴五教章』 斷惑分齊義는 원효의 斷惑論에 의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橫超慧日, 1979년, 「元曉の二障義について」, 『二障義』연구편, p.14~16, 平樂寺書店) 또한, 鎌田茂雄은 元曉의 『十門和諍論』의 空有會通 思想이 法藏의 『華嚴五教章』의 三性同異義에서의 空有交徹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鎌田茂雄, 1981년, 『十門和諍論』의 思想史的意義, 『佛敎敎學』 제11호, p.2, 佛敎敎學研究會)

4) 崔裕鎭은 그의 學位논문에서(1988년, 「元曉의 和諍思想研究」, p.42,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효의 언어관은 吉藏의 二諦說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길장의 상즉 개념과 원효의 화쟁 개념이 다 같이 견해의 치우침을 막으려는 데에 근본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5) 金夏雨는 「三論과 華嚴系(元曉·法藏系)의 轉悟方式」(1982년, 『哲學世界』 7, 고려대학교

효사상, 그리고 華嚴宗은 불교 사상사에 원융과 不二와 無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空의 실천 교학으로 확립되었고 이들은 사상을 천명한 主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본 논문은 相卽論에 의하여 般若와 華嚴을 비교하고 길장과 법장을 비교하며, 나아가 두 사상의 공통성과 상위성을 相卽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추구해 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II. 相卽의 論理的 構造

1. 相卽의 對立 개념

相卽論의 概念을 정리하기 위하여 相卽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로서 相卽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對立 개념이 先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三論 쪽에서는 色과 空, 世諦와 第一義諦, 不相離의 卽과 卽是의 卽, 無名相과 有名相, 假有와 假空, 非有와 非空, 非有爲有와 非空爲空, 一體와 異體, 橫과 豎, 體空과 析空, 三界內와 三界外, 空과 不空, 住와 不住, 二와 不二 등 무수한 대립 개념이 전제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개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中道の 不一 不異性を 파악해 내느냐 하는 것이 吉藏 등 三論學者의 과제였다고 본다. 吉藏은 道理로서 고정된 二諦가 아니라, 중생을 이끌기 위한 言教 方便의 二諦가 설해될 뿐이라 하여 대립과 고정성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假名の 空有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吉藏 역시 言語의 限界에서 오는 대립의 개념을 결국은 뛰어 넘지 못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相卽의 前 段階에는 언제나 극복해야 할 대립 개념이 선행되어 있음을 부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효는 그의 많은 經論의 註釋을 통하여 經의 大義를 밝히는 곳에서 반드시 상대적인 대립 개념을 사용하여 不二를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철학회)에서 吉藏의 三論學系와 元曉·法藏의 華嚴 學系와의 관계 속에서 轉悟方式을 문제 삼고, 相卽 方式에서 法藏과 元曉를 논하고, 諦觀 方式에서 般若 및 非有 非無의 諦觀을 논술하는 가운데에 相卽 내지는 諦觀이라는 개념으로 吉藏과 元曉와 法藏의 사상적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다.

또한 대열반은 離相·離性·非空·非不空·非我·非無我인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非空인가. 無性을 여윈 연고라. 무슨 까닭으로 非不空인가. 有性을 여윈 연고라. 또한 有相을 여윈 연고로 非我를 설하며 無相을 여윈 연고로 非無我를 설하며 非無我인 연고로 大我를 설할 수 있으며 非我인 연고로 또한 無我를 설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非空인 연고로 實有를 말할 수 있으며 非不空인 연고로 虛妄을 설할 수 있으니 如來秘藏이 뜻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異諍을 사이에 둘 수 있겠는가.⁶⁾

원효 역시 대립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립을 벗어난 경지를 설하려고 의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空이 아니고 空 아님도 아니라는 논리 전개는 상식적인 부정과 긍정의 범주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兩邊을 떨쳐 버리고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사물의 실상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다. 이 점에서 원효 또한 대립 개념을 사용하여 不二를 표출하려고 한 점에서 相卽의 이론을 함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원효는 『起信論別記』에서도 『起信論』이 動靜·染淨·眞俗·昇降 등의 모든 대립을 넘어서서 ‘無私至公’⁷⁾을 이루는 데에 諸論의 으뜸이 된다고 하였다. 이 때에 이 無私至公의 개념이 곧 이 相卽의 개념과 상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화쟁의 근원으로서 一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染淨諸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眞妄二門은 다르지 아니하므로 집짓 一이라 이름하며, 이 둘 아닌 곳이 곧 諸法의 實이 되어 虛空과 달라서 神解한 성품을 마음이라 이름하고, 이 마음에 대해서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굳이 이름하여 一心이라 부른다고 한다.⁸⁾

원효의 이상과 같은 논리 전개 속에 대립을 통하여 一心을 정의하고 있는바 상즉 이론의 전개와 일맥 상통하는 사상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 『涅槃宗要』(韓佛全1, 259 中)

7) 『大乘起信論別記』

曠兮 其若大虛而無私焉 蕩兮 其若巨海而有至公焉 有至公故動靜隨成 無其私故染淨斯融 染淨融故 眞俗平等 動靜成故昇降參差 昇降差故感應路通 眞俗等故思議路絕 思議絕故體之者乘影響而無方 感應通故所之者超名相而有歸 所垂影響非形非說 既超名相何超何歸 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也 (韓佛全1, 677 下~678 上)

8) 『大乘起信論別記』

所言一心者 染淨諸法 其性無二 眞妄二門 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 體異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然既無其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將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 自云強爲 一心也 (韓佛全1, 679 中)

『華嚴經疏』의 서문에서는 無障無碍 法界法門에 대한 정의 속에서 다음과 같이 대립을 통한 대립의 극복을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저 無障無碍 法界法門이란 법이 없기에 法 아님이 없고 門이 아니기에 門 아님이 없다. 이에 非大非小하고 非促非奢하며 不動不靜하고 不一不多하니, 大가 아닌 까닭에 極微를 지어도 남음이 없고 小가 아닌 까닭에 大虛가 되어도 남음이 있으며 泐이 아닌 까닭에 능히 三世劫을 포함하고 奢가 아닌 까닭에 舉體가 一刹那에 들어가며 不動不靜인 연고로 生死가 곧 涅槃, 열반이 곧 생사가 되며 不一不多인 연고로 一법이 곧 一切法, 一切法이 곧 一법이 되어 이와 같은 無障無碍의 법이 이에 法界法門의 妙術을 지으니 모든 大菩薩의 들어가는 바이며 三世諸佛의 나오는 바라⁹⁾

여기에서도 역시 모든 대립 개념을 통하여 대립을 극복한 경지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변에 치우치지 아니한 相卽과 相入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法藏은 吉藏의 수직적인 대립 개념에 대하여 體用으로 縱橫無盡한 대립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니, 즉, 緣起相由와 法性融通, 因의 有力과 無力, 待緣과 不待緣, 一과 多, 空과 有, 同과 異, 理와 事, 相卽과 相入 등을 들 수 있다. 法藏에게 華嚴敎學의 圓融理論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립 개념의 확립은 體用에서의 理와 事이고 役用에서 有力과 無力의 대립이다. 물론 空有의 개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는 法藏에 와서 비로소 강조된 것은 아니다.

華嚴에서 첫째 理와 事의 대립 개념은 空間과 時間의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근원적인 諸法의 空間的인 存在의 모습으로 설정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華嚴의 문헌 속에 특히 理事가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헌은 『華嚴三昧章』과 『發菩提心章』을 들 수 있다.¹⁰⁾ 물론 杜順(557~640)의 저서로 전해져 오는 『華嚴法界觀門』(이하 法界觀門)에서도 三觀三十門에 色空과 理事의 相卽無碍가 주제로 되어 있지만, 이 문헌은 저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¹¹⁾ 여기에서는 法藏의 저서를 다루고자 한다. 『華嚴三昧章』 및 『華嚴發菩提心章』¹²⁾을 중심으로 논을 전개해 보면, 문헌의 전체 구조는, 發心第一

9) 『華嚴經疏序』(韓佛全1, 495 上)

10) 이 두 문헌은 法藏의 저서로 전해져 오는데 두 문헌 내용이 거의 같으며, 杜順의 『華嚴法界觀門』과도 매우 관련이 있다. 두 문헌에 대한 비교 검토는 拙著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1995년, 民昌文化社, 第三章第三節) 參照.

11) 『華嚴法界觀門』의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拙著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pp.28~31 參照)

簡敎第二 第三顯過 第四顯德 第五理事圓融義로 구성되어 있는데, 第三顯過에서는 空色の 문제가 주제이고, 第四顯德에서는 『法界觀門』의 一眞空觀, 二理事無碍觀, 三周遍含容觀의 三觀과 四色空章十門止觀 및 五理事圓融義의 五門으로 이루어져서 空色과 理事의 相卽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전개시키고 있다.¹³⁾ 그리고 이는 『法界觀門』과 그 구성 및 내용이 흡사하여 견주어 볼 수 있다. 특히 第三顯過에서 色空空色이 相卽이 되는가, 不相卽이 되는가를 묻고, 答으로 四句가 있으니, 卽·非卽·俱·非俱에 각각 不可라고 하여¹⁴⁾ 어디에 치우쳐 논하여도 過失을 야기시킨다고 비판한 다음에, 第四顯德에서 空色과 理事의 無碍圓融을 설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그리고 곧 뒤를 이어서 理事相卽의 縱橫無碍과 理事圓融義를 밝힌다.¹⁵⁾

다음에 時間的인 相卽의 對立 개념으로 法藏의 경우 諸法의 作用면에서의 有力과 無力의 개념을 들 수 있다. 法藏은 여러 著書에서 因緣法인 諸法의 關係를 有力과 無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華嚴遊心法界記』(이하 『遊心法界記』)의 例文을 들어보 고자 한다.

「華嚴三昧」와 「海印三昧」를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三昧 方便에 들고자 하면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첫째는 解이고 둘째는 行이라 하며, 解 중에 二門으로 緣起相由門과 理性融通門을 거론하면서 緣起諸法의 相依相關을 有力無力과 彼此出入의 關係로 설하고 있다.¹⁶⁾ 다음의 理性融通門에서는 空不空門인 相入의 意味와 是不是門인 相卽의 의미로 원

12) 『華嚴三昧章』은 현재 高山寺本(宋本)과 金陵刻經處本의 두 種類가 있고 『華嚴發菩提心章』은 宗性寫 본과 享保刊行 본으로 나누는데, 前者는 東大寺에 寫本이 있고 後者는 大正藏經과 續藏經에 수록되어 있다.

13) 위에 든 拙著 pp.164~173 參照.

14) 『華嚴發菩提心章』에

第三顯過者 問色空空色爲相卽耶 爲不相卽耶 答有二門 一顯過二表德 第一顯過中有四句 謂卽亦不可 非卽亦不可 俱亦不可 俱非亦不可云云……第四表德者 自有五門 一眞空觀 二理事無碍觀 三周遍含容觀 四色空章十門止觀 五理事圓融義 第一眞空觀 於中略作四句十門 一會色歸空觀 二明空卽色觀 三空色無碍觀 四泯絕無寄觀 등을 통하여 華嚴空觀의 언어를 초월한 相卽의 경지를 표출하려고 노력한 부분으로 보인다. (大正藏45, 652 上~ 下)

15) 『法界觀門』의 三觀인 眞空觀, 理事無碍觀, 周遍含容觀은 空色無碍인 眞空觀은 相卽無碍를 가능하게 하는 土臺가 되는 개념이고 理事無碍는 縱的으로, 周遍含容은 橫的인 무애자재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리고 끝으로 理事圓融은 宗鏡무진의 전체를 포괄하는 無碍自在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본다.

16) 法藏의 有力無力 이론은 그의 『華嚴五敎章』에서는 第十義理分齊章의 四門 중에 第二緣起因門六義를 因의 空有와 有力, 無力, 待緣, 不待緣의 關係로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응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을 이끌어 보기로 하자.

第二에 是不是門이란, 一切有가 다 이 一有라. 무슨 까닭인가. 有를 由하여 空에 卽한 연고로 이미 空에 卽한 有는 空과 別異함이 없다. 이런 까닭에 一有가 곧 이 一切有인 연고로 是라 이르며, 一切가 이 一에 걸리지 아니하고 彼此가 歷然한 연고로 不是라 이른다.¹⁷⁾

이는 有空의 대립 개념을 통하여 결국 有空不異를 실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대립 개념은 대립을 융화한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이 교학의 전면에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여 華嚴信行的 위에서 三聖의 圓融을 근본으로 삼았던 澄觀(738~838)은 그의 『三聖圓融觀門』에서 相對와 相融을 통하여 圓融을 추구하려 한 예를 보이고 있다.¹⁸⁾

2. 相卽의 融通 개념

相卽論은 대립 개념을 전제로 하여 圓融에 나아가려는 논리 전개이다. 위에서 밝힌 바

에 緣起하는 因의 相卽相入하는 自在相을 밝히고 있다. (大正藏45, 501 下~502 上) 그리고 晩年の 저서이며 『華嚴五教止觀』과 관련되는 저서인 『遊心法界記』의 第五法界無碍門(華嚴三昧門)에서 華嚴 삼매와 海印 삼매에 의한 法界緣起를 실하고, 이 삼매에 들어가는 방편으로서 解와 行을 연다. 解에는 다시 緣起相卽門과 理性融通門을 열어서 연기 상유에서 유력 무력과 一多의 出入無碍를, 理性融通에서 空不空門(相入)과 是不是門(相卽)을 각각 들어 연기하는 제법의 一이면서 多이고 무한한 相依 相存의 관계를 대립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원융의 개념을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다. (大正藏45, 646 中~647 下 參照)

17) 『遊心法界記』

第二是不是門 以一切有皆是 一有也 何以故 由有卽空故 既有卽空空無別異 是故一有卽是一切有 故云是也 一切是一不碍彼此歷然 故云不是也 何以故 以有卽是空 一切卽以一有成故 如是無碍準 思取解 此云何知 按華嚴經云 知一卽多多卽一等如是諸一非一 具足同時卽入鎔融圓成一塊云云이라함. (大正藏45, 647 下)

18) 『三聖圓融觀門』

今略顯二門 一相對明表 二相融顯圓...然二聖法門 略爲三對 一以能信所信相對 二以解行相對 三以理智相對...第二相融顯圓 先明二聖法門各自圓融...二者二聖法門互相融者(大正藏45, 671 上~ 下)

를 토대로 하여 三論과 華嚴이 어떻게 대립을 초월하여 원융의 개념을 이끌어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吉藏은 二諦에 假名이라는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空有에 치우치지 않는 中道を 표출하려 한 노력을 <二諦合明中道>이나 <二不二橫豎의 並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法藏은 단순한 相卽만이 아니라 <相卽相入>을 함께 사용하는 데서 이미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논리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칠 것을 극히 조심하고 있다. 法藏은 그의 논리 구조가 반드시 쌍으로 거론하여 眞理의 不偏不黨함을 추구하고 있다. '緣起相由와 法性融通'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모든 해석에서 논리의 二重構造를 통하여 一元을 추구해 가는 것이 특색이다. 『華嚴五教章』에서 別敎의 二門으로 性海果分과 緣起因分으로 나누고 다시 分相門과 該攝門으로 나누며, 『第十義理分齊』에서도 不變과 隨緣, 似有와 無性, 情有와 理無¹⁹⁾ 그리고 『探玄記』의 五種 法界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각각 二門을 열어서 十門을 이루는 등이 그 예이다.²⁰⁾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결국 華嚴이 추구하는 원융무애를 향한 발돋움인 것이다. 그러한 표출을 六相圓融, 十玄無碍, 三性同異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法藏은 諸法에 대하여 대립과 융통을 동시에 거론하는 가능성의 근거로서 '諸法은 緣起法이기 때문이며 緣起法이기 때문에 空性'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空性인 緣起法인 까닭에 오히려 相卽相入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相卽相入이 가능한 이론 체계를 갖춘 것을 그는 圓敎이면서 別敎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三論의 相卽義는 최고의 價値인 二諦合明中道를 밝히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華嚴 法藏에게는 相卽相入論을 통하여 法界라고 하는 무대 위에 중흥무진으로 緣起法의 무애자재를 설하는 것이 곧 華嚴圓敎임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원효에 돌아가서 상즉의 융통 개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普法·一心·和諍 등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普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新羅의 表員의 저서인 『華嚴經文義要決問答』 중 「數十錢喻義」에서는 원효의 말을 이끌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문노니,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數錢喻를 쓰는가.

19) 『華嚴五教章』(大正藏45, 477 上, 499 上)

20) 『探玄記』

有爲法界에 本識能持諸法種子와 三世諸法差別邊際, 無爲法界에 性淨門과 離垢門, 亦有爲亦無爲法界에 隨相門과 無碍門, 非有爲非無爲法界에 形奪門과 無寄門, 無障碍法界에 普攝門과 圓融門 등을 들고 있다. (大正藏35, 440 中~441 上)

답하노니, 法藏師가 이르기를 大緣起陀羅尼法을 表하기 위함이라 하고, 義相師가 이르기를 緣起實相陀羅尼法을 보이기 위함이라 하며, 元曉師가 이르기를 普法義를 말하기 위함이라 하니, 이중에 둘이 있으니 異體와 同體라. 다시 처음 가운데에 둘이 있으니 相入과 相卽이라. 이 두 門을 둔 까닭은 모든 緣起가 다 두 뜻이 있는 연고다. 첫째는 有力과 無力의 뜻이니 이는 力用을 조망함이며, 둘째는 有體와 無體의 뜻이니 이는 自體를 조망함이라. 처음의 뜻에 의해 相入함을 얻고, 뒤의 뜻에 의해 相卽함을 얻는다. 初中에 自에 全力이 있으므로 능히 他를 섭하며 他는 전혀 無力인 까닭에 能入하니 他가 有力하고 自가 無力함을 위를 바꾸어보면 가히 알 수 있다.²¹⁾

數十錢의 비유는 『화엄경』 「야마천궁보살실계품」의 譬如算數法 增一至無量 數法無體性 智慧故差別²²⁾에 전거를 두고 있으며 지엄·의상·법장 등이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그 數十錢喩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효는 普法義를 밝히기 위함이라 하고 그 普法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체와 이체가 서로 상즉 상입하는 力用의 포괄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普法의 의미에 대해서 表員은 다시 「普法義」를 설정하고 普法를 역시 相入相是에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원효가 말하는 普法이란 일체 세계가 一 微塵에 들어가고 一 微塵이 一切세계에 들어가며 一 微塵과 같이 一切가 또한 그러하며 이러한 존재의 공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로서 三世 諸劫이 一刹那에 들어가고 일찰나에 삼세 제겁이 들어가서 大小와 促奢가 相入하여 一과 一切가 서로 걸림이 없이 融通무애함이 곧 普法이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²³⁾

원효가 말하는 普法義는 결국 표원의 글을 통하여 밝혀지는데, 곧 화엄의 법계 연기의 원용 무애성을 普法이라는 용어로 표명하고 있고 무엇이 서로 無碍한가에 대해서 『華嚴經疏』의 서문에 의하면 대략 諸法의 범주로서 大小(공간), 促奢(시간), 動靜(운동), 一多(수량)의 無碍함을 普法의 四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뿐만 아니라 원효는 그의

21) 『華嚴經文義要決問答』 (韓佛全 2, 358 上~ 中) 여기에서 異體同體와 相入相卽有力無力의 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황규찬, 1998년 5월, 『新羅表員의 華嚴學』, p.113, 민족사와 김천학, 1998년 11월, 『화엄경문의요결문답』, p.104, 민족사를 참조

22) 『화엄경』(大正藏10, 101 中), 구역 『화엄경』에서는 譬如數法十 增一至無量 皆實是本數 智慧故差別 (大正藏9, 465 上)으로 되어 있다.

23) 『화엄경문의요결문답』

曉云 謂一切世界入一微塵 一微塵入一切世界 如一微塵一切亦爾 三世諸劫入一刹那 一刹那入三世諸劫 如一刹那亦爾 如說大小促奢相入 餘一切門相入亦爾 如說相入 相是亦爾 謂一切法及一切門 一是一切 一切是一 如是廣蕩名爲普法 (韓佛全 2, p.366 上)

24) 『華嚴經疏序』 (韓佛全1, 495 上)

敎判을 설정함에 一乘의 隨分敎와 圓滿敎의 차이는 普法를 밝히고 못 밝힘에 달려 있다고 표원은 주석하고 있다.²⁵⁾

원효는 無碍法界의 融通한 모양을 普法이라 하고 그 普法이 가능한 이유를 十種因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원은 원효와 法藏의 十種無碍因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元曉의 十種因	法藏의 十種因 (華嚴經旨歸·華嚴經探玄記)
一者一與一切互爲鏡影 如帝網故	一大小無定故
二者一與一切更互緣集 如錢數故	二各唯心現故
三者皆唯是識 如夢境故	三如幻不實故
四者皆非實有 如幻事故	四無限因生故
五者同相異(相) 通一切故	五勝通自在故
六者至大至少 齊一量故	六三昧大用故
七者法性緣起 離性故	七難思解脫故
八者一心法體 非一異故	八果德圓極故
九者無碍法界 無邊無中故	九緣起相由故
十者法界法爾 無障無礙故	十法性融通故

위의 표는 普法이 相卽相入하는 원인으로서의 諸法의 무장무애한 이유를 열 가지로 들고 있으며 이는 곧 一乘圓敎의 圓融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法藏의 十因 중에 緣起相由와 法性融通은 그의 화엄사상의 融通無碍를 주장하는 근본 핵심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은 相卽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화엄의 대의를 표명하는 六相圓融 十玄無碍 등이며 元曉는 普法 一心 和諍 등으로 諸法의 원융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25) 『화엄경문의요결문답』

唐新羅元曉法師 亦立四敎 一三乘別敎 二三乘通敎 三一乘分敎 四一乘滿敎 三乘共學名三乘敎 於中未明法空名別相敎 通說法空是爲通敎 不共二乘名一乘敎 於中未顯普法名隨分敎 窮明普法名圓滿敎 (韓佛全2, p.385)

Ⅲ. 相卽의 思想的 展開

1. 二諦中道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다시 相卽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와 연관되는 二諦義에 대해서 문헌의 전거를 살펴보자. 般若 사상의 空과 色의 문제는 중국 三論敎學에는 곧 二諦로 대치되는 사상적 전개를 보게 되며 삼론교학의 중심 테마가 곧 二諦임은 분명하다.²⁶⁾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吉藏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즉

그러하여 師가 二諦義를 설함은 흔히 二處에 의함이니 첫째는 大品經에 의하고, 둘째는 中論에 의한다.²⁷⁾

라 하여, 三論의 핵심은 二諦에 있고, 二諦의 근거는 『般若經』과 그 주석서인 『中論』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大般若經』의 핵심 사상인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이나 『中論』의 「四諦品」 제18偈의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²⁸⁾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이는 般若에서 華嚴으로 이어지는 相卽論의 근본 명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장의 상즉론의 핵심인 二諦中道論은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二諦義』가 대표가 되며 『大乘玄論』이나 『十二門論疏』 등에서도 역설하고 있다.

大乘 經論에서 二諦義를 설한 根本 意義는 緣起法의 현상을 바르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이 있다. 색으로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實有로서 인정하는 誤謬를 바로 잡기 위하여 色卽空을 설한 것이며 이는 색과 空이 不異이고 不離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곧 일체 법은 因緣緣起法인 까닭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 등식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아마도 『中論』의 제18偈인 것이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기법의 요점인 諸法은 實體가 없다는 前提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직접적

26) 吉藏은 『二諦義』에서 師가 去世할 때에 다다라서 자리에 올라 門人에게 부촉하기를 出山 한 이래 二諦로서 正道를 삼았다고 말하며, 또한 못 經典이 二諦를 설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二諦를 밝히 알면 衆經을 다 요달할 수 있다고 한다. (大正藏45, 78 上)

27) 『二諦義』

然師導二諦義 多依二處 一依大品經 二依中論 今且依中論明二諦義 所以依中論導二諦者 中論以二諦爲宗 若了二諦中論卽便可明 爲是義故 依中論說二諦也 (大正藏45, 78 中)

28) 『中論』 (大正藏30, 33 中)

인 내용으로서 차별된 二法이 각각 서로 다르지 않다든지, 서로 別立하지 않다고 하는 敎說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반야경』뿐만이 아니라 『涅槃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師子吼菩薩品」에,

十二因緣을 佛性이라 名하나니, 佛性이라는 것이 곧 第一義空이며 第一義空을 이음하여 中道라 하며, 中道는 곧 이음하여 佛이라 하며 佛은 이음하여 涅槃이라 하느니라.²⁹⁾

라고 설하며, 더욱이 般若 空思想을 그대로 이은 『維摩經』의 不二法門이 또한 동일한 사상의 흐름이며 相卽 理論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吉藏은 그의 저서인 『二諦義』에서 二諦相卽을 논하는 경전으로서 다음의 세 경전을 전거로 들고 있다.³⁰⁾ 첫째는 『涅槃經』 「聖行品」에서 말하는 世諦가 곧 第一義諦라고 하는 것과,³¹⁾ 둘째는 앞에 든 『반야경』의 空卽色色卽空의 경문과, 셋째는 『維摩經』의 「入不二法門品」 중에 특히 喜見菩薩의 色이 滅해서 空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色性이 스스로 空하다고 하는 부분을³²⁾ 지적하고 있다.³³⁾

이상의 경문들에 의해서 相卽의 이론은 다시 吉藏에 의하면 莊嚴寺 僧旻(467~527)과 開善寺 智藏(458~522) 및 그의 제자인 龍光寺 僧綽을 들어서 僧旻과 智藏은 「卽是의 卽」을 설하고 僧綽은 不相離의 卽을 설한 것이라고 하여 이 三人의 說이 모든 相卽論을 포

29) 『涅槃經』

以是義故 十二因緣名爲佛性 佛性者卽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中道 中道者卽名爲佛 佛者名爲涅槃 (大正藏12, 768 下)

30) 『二諦義』

今且略出三處經文 明二諦相卽義 一者卽向所引涅槃經 世諦卽第一義 二者大品經 空卽色 色卽空 離空無色離色無空 三者淨名經 色性自空非色滅空 然此三經文 雖異意同也 (大正藏 45, 104 下)

31) 『涅槃經』 (大正藏12, 443 上, 684 下)

32) 『維摩經』

喜見菩薩曰 色色空爲二 色卽是空 非色滅空色性自空 如是受想行識識空爲二 識卽是空 非識滅空 識性自空 於其中而通達者 是爲入不二法門 (大正藏14, 551 上)

33) 또한 吉藏은 이 세 經典을 典據로 든 다음에, 『涅槃經』은 奢論이고 『般若經』과 『維摩經』은 切論이라는 표현으로 차이점을 말하고 있으며, 『涅槃經』의 卽은 不相離의 卽이고 『般若經』의 卽은 卽是의 卽이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吉藏의 『二諦義』 下 및 平井俊榮 「吉藏 『二諦章』의 思想と構造」, 1970년, 駒大仏教學部研究紀要 第28号, p.47, 駒澤大學)

괄한다고 말한다.³⁴⁾ 그리고 僧綽은 淨土와 穢土가 서로 여의지 아니하고 卽하지만(不相離의 卽), 淨과 穢의 體를 달리 보는 것이므로 異體를 說하는 것이며, 이는 經義에 반대되므로 논란할 의미가 없다고 하고, 僧旻과 智藏은 一體를 論하므로 卽是의 卽을 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吉藏은 비평을 가하여 僧旻과 智藏이 「二諦의 一體」를 주장하는 것은 말로는 一體를 주장하지만 眞諦와 俗諦, 名相과 無名相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므로 결국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眞과 俗에 대한 常과 無常의 문제, 區別과 無區別 등의 문제를 거론하여 구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相卽의 의미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곧 二諦의 同一性和 別異性的 딜레마에 빠지는 잘못을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³⁶⁾ 吉藏은 그 다음에 自說로서의 相卽論을 『二諦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假로 이름하여 有를 설하고 거짓으로 이름하여 空을 설한다. 거짓으로 이름하여 有를 설해서 世諦라 하고, 거짓으로 이름하여 空을 설해서 眞諦라 한다.

이미 假有라 이름함은 곧 非有를 有로 삼는 것이 되고, 이미 假空이라고 이름함은 곧 非空을 空이라고 하는 것이다.

非有를 有라 하면 空과 다른 有가 아니며, 非空을 空이라 하면 有와 다른 空이 아니다. 空과 다른 有가 아니라면 有를 空의 有라 이름하고, 有와 다른 空이 아니라면 空을 有의 空이라 이름한다.

有를 空의 有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空의 有는 곧 有의 空이며, 空을 有의 空이라 이름하는 까닭에 有의 空이 곧 空의 有가 되는 것이다.³⁷⁾

이에 대한 해석을 인용해 보면, 이는 곧 三論學派의 二諦說이 成實學派와는 다른 約教

34) 『二諦義』

然此三師釋 攝一切人 何者 開善與莊嚴明一體 龍光明異體 釋雖衆多 不出一異 故此三人 攝一切人也 龍光明異體 此義自反經不須更難 今且難莊嚴開善二家(大正藏45, 105 中)

35) 僧旻, 智藏, 僧綽의 說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앞에 든 坂本幸南의 논문 pp.344~345, 및 平井俊榮 논문 pp.47~48 參照.

36) 平井俊榮 위의 論文 p.49 參照.

37) 『二諦義』

大師舊云 假名說有 假名說空 假名說有爲世諦 假名說空爲眞諦 既名假有卽非有爲有 既名假空卽 非空爲空 非有爲有 非異空之有 非空爲空 非異有之空 非異空之有 有名空有 非異有之空 空名有空 有名空有故 空有卽有空 空名有空故 有空卽空有也(大正藏45, 105 下)라 함.

의 二諦인 言敎·方便의 二諦이기 때문이다. 他 學派의 二諦는 兩理·兩境으로 설하는 데 대해서 三論學派의 言敎의 二諦란 道理로서 二諦를 인정하지 않고 凡夫와 聖人과의 二緣에 있어서 衆生에 수순하여 衆生을 敎化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二諦가 있다고 說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三論學派에서는 二諦를 概念化 固定化해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³⁸⁾ 이러한 뜻을 吉藏은 『中觀論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다음은 就中에 假義를 해석한다는 것은 ‘因緣所生法’은 이는 世諦를 거둬함이라. ‘我說卽是空’은 第一義諦를 밝힘이라. ‘亦爲是假名’은 위의 二諦가 아울러 다 이 假임을 해석함이라. 이미 이르기를 ‘衆緣所生法我說卽是空’은 이는 이 有가 宛然히 空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까닭에 空은 스스로 空 아님을 이름하여 假空이라 하며, 空이 宛然히 有라고 한다면, 有는 스스로 有가 아님을 이름하여 假有라 한다. ‘亦是中道義’란 空有의 假名을 說하여 中道를 表함이라. 假有는 不住의 有임을 밝히는 연고로 有는 有가 아니며, 假空은 不住의 空인 연고로 空은 空이 아니니, 非空非有가 곧 이 中道라.³⁹⁾

라고 주석하고 있다. 곧 吉藏의 二諦 相卽의 의미는 有는 宛然히 空이며 空은 완전히 有임으로 假名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개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굳이 개별의 의미를 설정하는 것은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한 言敎와 方便의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二諦는 근본적으로 서로 融卽하여 二諦 相卽의 理論이 成立한다는 주장이다. 假名으로서의 二諦는 中道로써 그 意義를 인정받게 되며, ‘二不二橫豎의 並觀’⁴⁰⁾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和諍一心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和諍一心이라는 제목을 세운 것은 반야사상에서 연유된 二諦中道 사상은 신

38) 平井俊榮, 앞의 논문. p.51 參照

39) 『中觀論疏』

次就中假義釋者 因緣所生法此牒世諦也 我說卽是空明第一義諦也 亦爲是假名釋上二諦並皆是假 既云衆緣所生法我說卽是空 此是有宛然而空故空不自空 名爲假空 空宛然而有不自有 名爲假有亦是中道義者 說空有假名爲表中道 明假有不住有故有非有 假空不住空故空非空 非空非有卽是中道 (大正藏42, 152中)

40) 平井俊榮 「三論思想における空觀」 (1982年, 『佛教思想』 7空下, 平樂寺書店, pp.711~713 參照)

라의 원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불교사상의 통합 내지는 융화의 가능성으로서 화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고 본다. 반야사상의 二諦說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中道에 있었다고 한다면, 원호는 중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一心의 개념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길장의 二諦中道가 다분히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원호의 和靜一心은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념을 현실 속에 구현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주체를 중생에 두고 있는 것이다. 화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十門和靜이라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근본이 되는 것은 空과 有에 대한 화쟁이고 佛性の 有無에 대한 화쟁이다.⁴¹⁾

원호는 그의 和靜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起信論』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起信論別記』에 의하면,

이 論으로 말하면, 세우지 아니함이 없고 破하지 아니함이 없다. 저 『中觀論』과 『十二門論』 등은 두루 諸執을 파하여 타파하는 것까지 파하나 能破와 所破를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내고 두루하지 못하는 論이라. 『瑜伽論』과 『攝大乘論』 등은 통히 深淺을 세워서 法門을 判釋하나 스스로 세운바 法을 두루 보내지 못하니 이는 주고서 빼앗지 못하는 論이라. 이제 이 論은 智와 仁이 갖추어지고 깊고 넓어서 세우고 스스로 보내지 아니함이 없으며, 破하고 도리어 허락하지 아니함이 없다. 도리어 허락한다 함은 저 간자가 가기를 極하면 도리어 두루 세워짐을 나타냄이요, 스스로 보낸다 함은 이는 준 것이 주기를 窮하면 도리어 빼앗는 것임을 밝힘이니 그러므로 諸論의 祖宗이 되고 群靜의 評主가 되는 것이다.⁴²⁾

라고 한다. 이 인용에서 타파하고[破], 가고[往], 보내고[遣], 빼앗고[奪] 등은 否定의 논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우고[立], 허락하고[許], 두루하고[遍], 주고[與] 등은 肯定의 논법을 의미한다. 원호의 평가에 의하면, 『中觀論』과 『十二門論』은 모든 집착을 타파하는 데에 너무 치우쳐서 諸法을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 반면에 『瑜伽論』과 『攝大乘論』

41) 원호의 화쟁사상 내지는 『十門和靜論』에 대한 모든 자료는,

『원호의 화쟁사상』 I·II, 『元曉研究論選集』 제9~10, 中央僧伽大學校 佛教史學研究所에 수록되어 있다.

42) 『起信論別記』

其爲論也 無所不立無所不破 如中觀論十二門論等 遍破諸執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遍論也 其瑜伽論攝大乘論等 通立淺深判於法門 而不融遣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旣智旣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遍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群靜之評主也(韓佛全1, p.678 上)

등은 法相을 세우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 法執을 털어 버리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본다. 그러나 『起信論』은 과하고 세우는 두 면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論書의 으뜸이 되고 群諍을 다스리는 주역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효의 화쟁은 『起信論』 사상에 입각해서 진리를 파악함에 어느 일변의 사상이나 논리에 치우치지 아니함을 최대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涅槃宗要』에서도 異諍을 일삼으면 佛意를 잃어버리는 허물을 짓게 되고 만약 定執을 여의면 法門은 無碍하여 서로 걸림이 없어서 妄心으로 자재함을 얻지 못하면 無我를 설하고, 眞智로 깨달은바 도리에 입각하면 不空을 설하고, 眞智를 증득하여 무애자재하면 大我라 이름한다고 설한다.⁴³⁾

이와 같이 원효의 화쟁사상이란, 객관적으로 諸法의 固定性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諸法을 상대하는 주체의 一心이 자재무애하며 眞智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는가가 화쟁을 이루는 근본 요인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화쟁의 근본 경론으로서 『起信論』과 『涅槃經』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和諍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十門의 和諍으로 정리하고 있다.⁴⁵⁾ 우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서 空有에 대한 화쟁이론을 이끌어 보자.

여기에서 有라고 허락함은 空과 다르지 않은고로 비록 전과 같더라도 增益되지 않으며, 설사 有라 허락하더라도 사실은 有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허락하는 바의 有는 有에 떨어지지 아니하지 않는 연고로 비록 뒤와 같다 하더라도 損滅이 아니다. 앞에 설

43) 『涅槃宗要』

又若涅槃是實有者 卽不能離實有之言 其能離實有言者卽爲實有 宜是妄語 是故當知 彼說實有 唯說自心妄取境界耳 問如是二說何得何失 答故若如言取二說皆失 互相異諍失佛意 若非定執二說俱得 法門無碍不相妨故 是義云何 若就德患相對之門 卽生死是空 涅槃不空 以妄心所取無境 當知故說爲空 能取妄心不得自在故說無我 眞智所證道理稱心故說不空 能證眞智無碍自在故名大我 (韓佛全1, 529 上)

44) 李晩鎔은 원효는 『起信論』으로 화쟁사상의 기점으로 삼고, 『涅槃經』으로 종점을 삼았으며, 『法華經』으로 대·소승 일체 교의의 귀착지로 삼아 無量乘卽一乘의 通佛敎思想을 확립했다고 평가한다. (이만용, 『元曉의 思想』, p.71, 展望社)

45) 원효의 화쟁 내지는 십문화쟁에 대한 중요 연구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1) 이종익, 「元曉의 근본사상 연구」, 東方思想個人論文集, 제1집
- (2)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佛敎學報 第15집
- (3) 이만용, 『원효의 사상』, 展望社
- (4) 고익진, 「원효사상의 사적 의의」, 동국사상, 제14집
- (5) 최유진, 1988년,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로 이 有라 설한 것은 空과 다르지 아니한 有이며, 뒤에 有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한 것은 空과 다른 有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모두 허락하나 서로 어기지 않는다. 不然 아님을 말미암아 함께 허락을 얻으나 또한 然이 아니며, 함께 허락하지 않는 까닭에 이 非然이 然과 다르지 아니하니 그 有가 空과 다르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런 연고로 비록 함께 허락하지 아니하나 또한 本宗을 잃지 아니하며 이런 연고로 四句가 아울러 서서 모든 過失을 여의는 것이다.⁴⁶⁾

위의 인용문은 空과 有의 두 극단을 떠나서 和諍을 모색하는 논리적 전개를 시도하는 부분이다. 허락한다 함은 양극단을 다 인정하는 것이고 不許는 함께 부정하기도 하는 것인데, 空과 有의 그 자체가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떠한 논리적 전개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화쟁 일심이라 함은 모든 異論을 하나로 융합해 가는 원동력이 인식 주체로서의 一心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起信論』의 一心二門의 구조에 부합하는 것이며 一心의 개념을 통하여 화쟁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諸法과 일체 衆生은 一心의 근원에 돌아가서 平等無差別하다는 주장이 곧 和諍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相卽의 개념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一心의 설명에 대해서는 원효 사상의 종결이라고 평가하는 『金剛三昧經論』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經의 大意를 설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무릇 一心의 근원은 有無를 떠나서 홀로 淸淨하며 三空의 바다는 眞俗을 融合하여 맑고 고요하다. 맑고 고요함은 둘을 融合하나 하나가 아니요, 홀로 청정함은 邊을 여의나 中도 아니다. 中도 아니고 邊을 여의었으므로 故로 不有의 법이 곧 無에 住함도 아니며, 不無의 相이 곧 有에 住함도 아니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합하였으니 故로 非眞의 事가 아직 俗이 된 것이 아니며, 非俗의 理가 아직 眞이 된 것도 아니다. 둘을 融合하였으나 하나가 아니니 故로 眞俗의 性이 서지 못하는 바가 없고, 染淨의 相이 갖추지 못함이 없다. 邊을 여의었으나 中이 아니니 故로 有無의 법이 짓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是非의 뜻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라. 이는 곧 破함이 없되 破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세움이 없되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니 可히 無理의 至理이며 不然의 大然인 것이

46) 『十門和諍論』

此所許有 不異於空 故雖如前而非增益 假許是有 實非墮有 此所許有 非不墮有 故雖如後而非損減 前說實是有者 是不異空之有 後說不墮有者 不墮異空之有 是故俱許而不相違 由非不然 故得俱許 而亦非然 故俱不許 此之非然 不異於然 喻如其有 不異於空 是故雖俱不許而亦不失本宗 是故四句 竝立而離諸過失也 (韓佛全1, 838 上)

다.4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원효의 理論은 一心을 근본으로 하면서 一心을 정의하여 有無, 眞俗, 一二, 中邊, 是非, 破와 不破, 然과 不然, 立과 不立, 無理와 至理 등의 對立의 개념을 사용하여 對立이 아닌 경지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대립을 여윈 궁극의 세계를 一心이라 하여 和諍과 融和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十重法門 중48) 一門과 二門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一門에서는 一心 중에 一念이 動하여 一實에 順하고 一行을 닦아서 一乘에 들어가며 一道에 住하여 一覺을 사용하고 一味를 깨달음이며, 二門 중에는 二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二衆을 보내며 二我에 착하지 아니하고 二邊을 여의고 二空을 통달하여 二乘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二諦를 함께 융합하여 二入을 어기지 아니한다고 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그를 지양하여 一에 合一하려는 끝없는 노력이며, 相卽의 理論과 매우 유사하며 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전후의 관계 속에 서로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圓融無碍를 중심으로

相卽論을 비교 고찰함에 먼저 吉藏의 『二諦義』를 중심으로 三論敎學의 二諦相卽論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論을 華嚴쪽으로 옮겨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華嚴敎學의 형성은 智儼(602~668)을 기초로 하여 法藏(643~712)에 이르러 確立되었다고 논한다. 이제 華嚴의 相卽論을 고찰함에 法藏의 相卽論을 통하여 화엄교학의 핵심인 圓融無碍의 理論을 살펴며 동시에 吉藏과 法藏의 相卽理論의 전개를 고찰해 보고자

47) 『金剛三昧經論』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湛然融二而不一 獨淨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 故不有之法 不卽住無 不無之相 不卽住有 不一而融二 故非眞之事 未始爲俗 非俗之理 未始爲眞也 融二而不一 故眞俗之性 無所不立 染淨之相 莫不備焉 離邊而非中 故有無之法 無所不作 是非之義 莫不周焉 爾乃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韓佛全1, 604 中)

48) 『金剛三昧經論』

此經宗要 有開有合 合而言之 一味觀行爲要 開而說之 十重法門爲宗 言觀行者 觀是橫論 通於境智 行是豎望 亘其因果……開說十門 爲其宗者 謂從一門 增至十門 一門云何 一心中一念動 順一實 修一行 入一乘 住一道 用一覺 覺一味 二門云何 不住二岸 以遣二衆 不着二我 以離二邊 通達二空 不墮二乘 俱融二諦 不違二入 (韓佛全1, 604 下)

한다.

法藏은 많은 저서에서 圓敎이면서 別敎로서의 華嚴과 他敎의 差別點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일체를 포괄하여 남김이 없는 원융성을 확일적으로 추구해 나갔다. 이러한 理論 構造는 自家撞着的인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화엄교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학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法藏이 강조한 화엄의 특성은 圓融無碍性에 있고 이 원융무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가 곧 화엄의 상즉론이라고 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相卽相入’이 될 것이다. 화엄교학의 相卽의 근거는 역시 『華嚴經』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如來現相品」의 ‘佛身充滿於法界’⁴⁹⁾과 「光明覺品」의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⁵⁰⁾, 「菩薩問明品」의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一切諸佛身 唯一法身’ ‘一切衆生入 而實無所入…法界衆生界究竟無差別’⁵¹⁾, 「昇須彌山頂品」의 ‘不離一切菩提樹下而 上昇須彌向帝釋殿’⁵²⁾, 「梵行品」의 ‘初發心時 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⁵³⁾, 「夜摩宮中偈讚品」의 ‘譬如算數法 增一至無量’,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⁵⁴⁾, 「十地品」의 ‘三界所有 唯一心’⁵⁵⁾ 등 무수한 經文들이 곧 時間과 空間, 一과 多, 往來, 佛과 衆生 등의 差別 속의 卽一性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곧 화엄교학의 相卽相入의 無碍論을 형성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본다.

華嚴의 相卽理論의 바탕은 華嚴敎學이 圓敎라는 데에 사상적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圓敎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天台智顗(538~597)는 『摩訶止觀』에서 ‘圓敎는 다만 一實諦를 밝힘’이라고 하며, 生滅四諦, 無生四諦, 無量四諦, 無作四諦 중에 圓敎는 無作四諦에 해당된다고 설하고 있다.⁵⁶⁾ 또한 『四敎義』에서는 원만하여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뜻을 삼고, 不思議因緣을 밝히며, 二諦中道の 事理具足이며, 不偏不別하여 最上利根의 사람을 교화하는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⁷⁾ 法藏의 스승인 智儼은 慧光(468~537)의 漸·頓·圓 三敎判에 이어서 초기에 三敎의 敎判을 세우면서 圓敎를 정의하여 ‘上達의 根機를 佛境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解脫究竟法門을 설한 것’이라 하여 佛事를 滿足함을 圓敎라 이

49) 『華嚴經』 如來現相品

佛身充滿於法界 普現一切衆生前 隨緣赴感靡不周而恒處此菩提座 (大正藏10, 30 上)

50) 『華嚴經』 (大正藏10, 63 上)

51) 『華嚴經』 (大正藏10, 69 上)

52) 『華嚴經』 (大正藏10, 80 下)

53) 『華嚴經』 (大正藏10, 89 上)

54) 『華嚴經』 (大正藏10, 102 上)

55) 『華嚴經』 (大正藏10, 194 上)

56) 『摩訶止觀』 (大正藏46, 28 中)

57) 『四敎義』 (大正藏46, 722 中)

름하며 『화엄경』은 頓·圓二敎에 包攝된다고 말한다.⁵⁸⁾ 그리고 一乘圓敎 및 頓敎의 法門으로써 十門玄(十玄門)을 創設하는 가운데에 第八諸法相卽自在門을 들고 있으며,⁵⁹⁾ 十玄門의 내용 자체가 바로 相卽相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晩年の 저서인 『華嚴五十要問答』 「一念成佛義」에서 緣을 모아 實을 좇을 때에 法性は 多少·長短이 없어서, 一이 이루어지면 곧 一切를 이루고 一切가 이루어지면 곧 一을 이루어서 有爲의 諸劫이 相作 및 相入하므로 一乘에 의하면 成佛時가 모두 一定하지 않다고 하는데서 ‘相作相入’語를 사용하고 있다.⁶⁰⁾ 여기에서 ‘相作’은 곧 相卽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는 一乘의 成佛 時期를 一念成佛로 표명하고 있는데, 곧 時間의 融通無碍性을論하는 대목이다. 이는 天台思想의 ‘一念三千說’ 혹은 ‘一念心起卽空卽假卽中’⁶¹⁾ 등의 사상과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智儼의 直弟子이며 法藏의 師兄格인 新羅의 義湘(625~702)은 『華嚴一乘法界圖』에서 ‘法性は 圓融하여 二相이 없다.’는 전체하에 相卽相融을 통하여 中道를 나타낸다고 하며, 특히 그의 짧은 문헌 속에 열한 곳에서 中道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本末相卽으로서 相卽相融하여 中道를 나눈다는⁶²⁾ 사상은 곧 바로 吉藏의 二諦相卽을 통하여 中道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상과 같은 맥락을 느끼게 한다. 義湘은 다시 別敎一乘의 敎義에서 理理相卽⁶³⁾, 事事相卽 理事相卽, 各各不相卽 亦得相卽의 四義를 말하는 등 相卽의 이론을 구체화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相卽의 구체적인 예로서 ‘向上來 向下去’의 數十錢法을 들고 있

58) 『搜玄記』(大正藏35, 14 中)

59) 『搜玄記』(大正藏35, 15 中)

60) 『華嚴五十要問答』에서

二會緣從實時 法性無多少長短 一成卽一切成 一切成卽一成故… 竝據當分報位說有爲諸劫相作及相入等 故無定時 仍不違時法也 (大正藏45, 520 上)라 하며, 또한 『佛情根義』에서도 佛諸情根相入相 作差別云何라 하여 두 곳에서 相入相作을 말하고 있다.

61) 『摩訶止觀』

次根塵相對 一念心起卽空卽假卽中者 若根若塵 並是法界 並是畢竟空 並是如來藏 並是中道 云何卽空 並從緣生 緣生卽無主 無主卽空 云何卽假 無主而生卽是假 云何卽中 不出法性 並皆卽中 當知 一念卽空卽假卽中 並是畢竟空 並是如來藏 並實相 非三而三三而不三 非合非散而合而散 非非合非非散 不可一異而一異 (大正藏46, 8 下~9 上)

62) 『華嚴一乘法界圖』(大正藏45, 713 下, 義湘의 中道에 대한 논의는 拙論 1993년, 「新羅華嚴敎學의 思想史的 考察」, 海印僧伽大學 修多羅 第9号, p.166 參照)

63) 義湘의 相卽說의 特性이라고 하는 <理理相卽說>에 대해서는, 石井公成, 1996年, 『華嚴思想の研究』, pp.255~267 參照)

64) 『華嚴一乘法界圖』(大正藏45, 714 中)

다.⁶⁵⁾ 즉, 一錢으로부터 十錢에 이를 때에 一은 十과의 關係 속에서 十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동일한 개념으로서 一中十 十中一이 곧 相卽의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緣起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결국은 中道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론이 相卽의 이론임을 알 수 있다.

法藏은 智儼과 義湘의 思想을 이어 받고, 옆으로는 天台의 敎學을 참고로 하여 그의 華嚴敎學을 완성하게 된다. 일찍이 天竺의 到來僧인 日照三藏(地婆訶羅, Divākara)에게서 전해들은 印度의 戒賢과 智光의 空有의 論爭을 전해듣고 法相大乘과 無相大乘을 融會하여 결국 空有 相卽의 이론을 터득하여 원융무애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화엄교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⁶⁶⁾ 그리고 법장은 또한 원효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法藏의 相卽論은 이상과 같은 諸 思想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히 華嚴圓融思想의 이론적 근거로서 相卽理論이 확립되고 강조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法藏은 그의 力著인 『探玄記』에서 圓敎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다섯째 圓敎中の 所說은 오직 이 無盡法界이니, 性海가 圓融하고 緣起無碍라. 相卽相入함이 마치 因陀羅網의 重重無際 微細相容 主伴無盡과 같다. 十法門이 각각 法界에 稱合함이라.⁶⁷⁾

라고 한다. 이는 法界에 緣起法이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相卽相入 개념으로 설한 부분이며, 이것이 곧 圓敎의 定義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탐현기』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 「能證敎體」를 해석한 내용 중에 十門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言證體門 二通攝所證門 三遍該諸法門 四緣起唯心門 五會緣入實門
六理事無碍門 七事融相攝門 八帝網重重門 九海印炳現門 十主伴圓備門⁶⁸⁾

65) 본 논문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表員은 그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중 「數十錢喻義」에서 數十錢喻를 설한 까닭에 대해서, 法藏은 大緣起陀羅尼法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義湘은 緣起實相陀羅尼法을 보이기 위해서이며, 元曉는 普法義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표원은 또한 義湘이 中門에서 표기한 向上來와 向下去는 진후가 도착되었으므로 向上去와 向下來로 표기함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韓佛全 2, 358 中 ~ 下)

66) 이 문제에 대해서는 吉津宜英 「法藏의 四宗判의 形成と展開」(1979年, 『宗教研究』第53卷 pp.92~95 參照)

67) 『探玄記』(大正藏35, 116 上)

이상의 十門 중에 특히 後의 五門이 華嚴의 圓融相卽의 意味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개념들이다. 또한 『探玄記』 玄談의 끝 부분에서 諸法 緣起의 混融 無碍한 이유에 대해서 第一緣起相由와 第二法性融通 등 十義를 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緣起相由'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시 十義를 들어서 註釋하고 있는데, 그 낱말에 대해서 相卽相入義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처음 緣起相由인 까닭이란 大法界中에 緣起 法海가 義門이 無量하니,
圓宗에 나아가서 간략히 十門을 들어서 해석한다.

一諸法各異義 二互遍相資義 三俱存無碍義 四異門相入義 五異體相卽義
六體用雙融義 七同體相入義 八同體相卽義 九俱融無碍義 十同異圓備義이다.⁶⁹⁾

라고 설명하면서 연기법의 一多, 無碍, 異體의 相卽相入, 同體의 相卽相入, 俱融과 圓備를 설하고 있는데, 이들은 곧 相卽相入의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 法藏이 相卽論을 설한 제일의 목적은 緣起法의 圓融無碍性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法藏의 초기 著書인 『華嚴五教章』에서는 「第十義理分齊」의 一三性同異義, 二緣起因門六義法, 三十玄緣起無碍法, 四六相圓融義가⁷⁰⁾ 華嚴相卽論의 實質的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第二因門六義法은 空과 有, 有力과 無力, 待緣과 不待緣이라는 대립 개념을 극복한 후 그를 바탕으로 因門의 相卽義를 나타낸 것이다.

IV. 結論

以上에서 相卽論을 주제로 三論과 華嚴 사상을 比較 考察해 보았다. 三論의 二諦相卽論은 理法이나, 아니면 別立의 境地로서의 二諦가 아니라, 衆生 敎化의 方便으로서 거것으로 二諦의 名을 세웠다고 하는 吉藏의 主張은, 곧 바로 諸法의 空相을 근본 토대로 하여 緣起의 諸法을 認定하려고 하는 法藏의 緣起相由와 法性融通의 이론에 相卽論을 통하여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相卽의 범위와 지향점이 다름을 지적할 수 있

68) 『探玄記』 (大正藏35, 117 下)

69) 『探玄記』 (大正藏35, 124 上 ~ 下)

70) 『華嚴五教章』 (大正藏45, 499 上)

다. 法藏은 그의 모든 著書 속에 무수한 대립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融會나 自在圓融, 無碍의 개념을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설정한 개념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探玄記』에서 「入法界品」을 주석하는 가운데에 五種法界를 설정하고 第五無障礙法界에서 모든 대립을 넘어서 普攝 圓融을 달성하는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⁷¹⁾ 그러나 이러한 法藏의 사상은 직접적으로는 스승인 智儼과 師兄인 義湘의 영향을 받았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많은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法藏이 『華嚴五教章』에서 不異空之有的 不動眞際建立諸法과 不異有之空의 不動緣生說實相法⁷²⁾이라고 한 부분을 그대로 吉藏의 說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⁷³⁾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효의 화쟁사상 내지는 空有의 이론은 華嚴相卽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法藏의 화엄교학의 圓融無碍 사상은 인도의 戒賢과 智光의 空有論과⁷⁴⁾ 吉藏의 二諦相卽義, 그리고 元曉의 和諍一心論의 입체적 관계 속에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뒤를 이은 澄觀은 이 이론을 완결 짓는 의미에서 그의 四種法界의 무애설을 완성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無障礙法界의 개념을 人格에 대비하여 普賢은 法界門으로서 所入으로 삼고, 文殊는 般若門으로서 能入으로 삼아서

71) 『探玄記』

所入法界義有五門 一有爲法界 二無爲法界 三亦有爲法界亦無爲法界 四非有爲非無爲法界 五無障礙法界…二辨能入亦有五門 一淨信 二正解 三修行 四證得 五圓滿…初所入中 亦五重 一法法界 二人法界 三人法俱融法界 四人法俱泯法界 五無障礙法界(大正藏35, 440 中~441 上)

72) 『華嚴五教章』 제10義理分齊

聖說依他以爲有者 此卽不異空之有 何以故 從衆緣無體性故 一一緣中 無作者故 由緣無作方得緣起 是故卽非之有 名依他有 是則聖者不動眞際建立諸法…聖說緣生以爲空者 此卽不異有之空也 何以故 以法從緣生方說無性 是故緣生有者方得爲空 若不爾者無緣生因 以何所以而得言空 是故不異有之空名緣生空 此卽聖者不動緣生說實相法也 (大正藏45, 500 下~501 上)

73) 吉藏은 『大乘玄論』에서

有一方言云 假名說有爲世諦 假名說空爲眞諦 旣明假有卽非有爲有 旣明假空卽非空爲空 非有爲有 非異空之有 非空爲空 非異有之空 非異空之有 有名空有 非異有之空 空名有空 有名空有故空有卽 有空 空名有空故有空卽空有 (大正藏45, 22 上)라 하였으며,

또한 『淨名玄論』에서도

眞故無有 雖無而有 卽是不動眞際而建立諸法 俗故無無 雖有而無 卽是不壞假名而說實相 (大正藏38, 883 中)라고 밝히고 있다.

74) 法藏의 『大乘起信論義記』 卷上 (大正藏44, 242 中)참고.

普賢은 三昧 自在로서 廣大의 뜻을 표하고, 文殊는 般若 自在로서 甚深의 뜻을 표하여 이 둘의 무애자재를 곧 毘盧遮那의 원융의 경지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⁷⁵⁾

명실공히 화엄의 원융사상은 理法만으로의 원융이 아니라 바로 인격 속에 원융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 바로 화엄의 相卽을 통한 無碍의 추구이며, 澄觀에서는 三聖圓融의 華嚴信行으로서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法藏은 이러한 비로자나 佛身の 圓融無碍를 十重無碍로 표현하고⁷⁶⁾, 第十圓通無碍에서 佛身은 理事·一多·依正·人法·此彼·情非情·深淺·廣狹·因果·三身 十身に 相卽하는 同一無碍自在法界라고 정의하여 相卽理論을 통하여 佛身の 無碍圓融의 世界를 완결 짓고 있음을 본다.⁷⁷⁾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般若, 三論, 和諍, 華嚴을 통하여 각 人物들의 사상이 상관 관계가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사상의 흐름을 통하여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서 진리의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언어 중의 하나가 곧 ‘相卽’이며 그 내용은 不二, 中道, 圓融, 無碍, 和諍, 一心 등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5) 『探玄記』(大正藏35, 441 下)

76) 『華嚴經旨歸』

答毘盧遮那法界身雲無障礙故 常在此處卽在他處 故遠在他方恒住此故 身不分異亦非一故 同時異 處一身圓滿 皆全現故 一切菩薩不能思故 今顯此義略辨十重 一用周無碍 二相遍無碍 三寂用無碍 四依起無碍 五眞應無碍 六分圓無碍 七因果無碍 八依正無碍 九潛入無碍 十圓通無碍 (大正藏45, 591 上)

77) 上同

十圓通無碍者 謂此佛身卽理卽事卽一卽多卽依卽正卽人卽法卽此卽彼卽情卽非情卽深卽淺 卽廣卽狹 卽因卽果卽三身卽十身 同一無碍自在法界 難可稱說 如來以自在身雲 於前時處常 說華嚴無休無息 (大正藏45, 591 下)